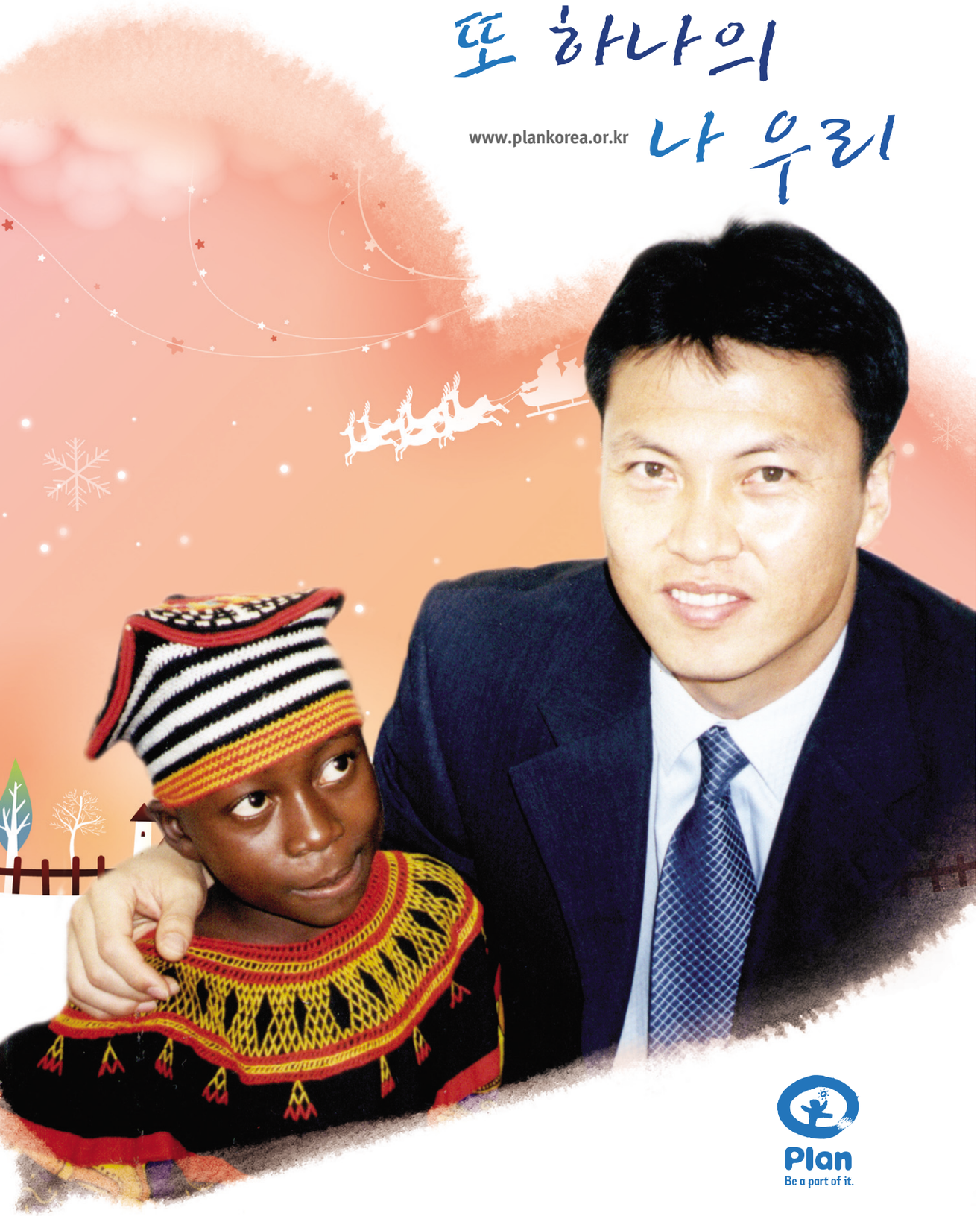
또 하나의 나 우리

www.plankorea.or.kr



Plan
Be a part of it.

행복을 주는 사람

후원자님께.

안녕하십니까?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축구선수 이운재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때, 지구 반대편 카메룬에서는 소년 브레스코가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레스코와의 인연은 2003년, 플랜코리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조차 생각하기 힘든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는 이야기에, 마냥 힘없고 풀 죽은 어린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조그마한 체구에, 동그란 아이의 눈망울에서 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간, 브레스코가 꿈을 키워가며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브레스코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지원이 없어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 저 편의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함께 느낀 감동과 행복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후원자님께서 주변 분들에게 후원에 참여해주시기를 권해주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나눔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요즘이지만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홍보대사 **이 운 재**

또 하나의 나 우리

www.plankorea.or.kr **Vol.045**

'또 하나의 나 우리' 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 입니다.

플랜은 70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기구 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 원조 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국제본부를 두고 있으며 17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9개 저개발국의 1백45만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2 행복을 주는 사람 • 홍보대사 축구선수 이운재

05 플랜과 Child Media • 어린이의 눈으로 본 세상

06 지구촌을 간다 • 성남고등학교 2학년 이병준
다시 만날 캄보디아를 생각하며…

08 플랜 캠페인 • 1년의 기적
플랜의 아동 후원은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0 플랜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업 • 명품마케팅담당 김혜주
Share the Love with Avenuel

12 우리는 플랜 가족 • 한영외고Plan 번역 동아리 김진연, 정라희, 한재선
캄보디아 방문기

14 플랜 지구촌 꿈터 • 다음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팀 박지영 과장
네팔 희망학교 아이들과 보낸 특별한 여름 이야기

플랜 NEWS

16 플랜 코리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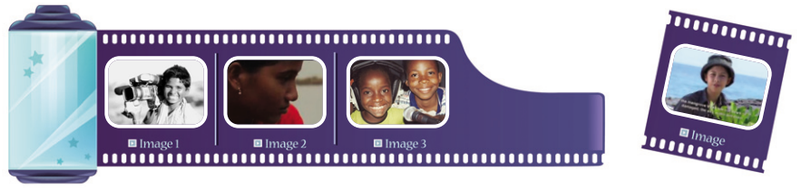
18 플랜 지구촌 소식

19 후원아동의 종교

20 플랜클럽

21 플랜과 함께하는분들
모금함 · 특별후원금 · 특별 후원자 · 봉사 ·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EXR®
progressive



월드뱅크 필름 콘테스트에 플랜 작품 2개가 최종수상작에 올라

플랜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의 2개 작품이 월드뱅크에서 주최한 기후 변화 필름 콘테스트 최종수상작 후보에 올랐다. 이번 콘테스트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현재 21개의 수상작 후보들이 월드뱅크 홈페이지 (www.worldbank.org)와 플랜 YouTube(http://kr.youtube.com/user/planinternationaltv)에 게시 되어 있고, 수상작은 2009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플랜 방글라데시의 작품, '홍수에 잠긴 홀디바리의 어린이들(Flood Children of Holdibari)' 은 방글라데시의 섬, 홀디바리에 살고 있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로 4년 간 10번이나 이사를 한 '샤프라' 라는 어린이의 이야기이다. 작품에는 샤프라와 섬의 다른 어린이들이 어린이그룹을 만들어 홍수 예방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특히 플랜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우리의 작은 손' 이라는 작품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담아 24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 부분의 후보로 올랐다.

플랜과 Child Media

CCCD(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 아동중심지역개발)을 통해 저개발국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플랜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플랜은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60여 개의 Child Media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들 스스로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 13조에서는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라고 나와있다. Child Media 는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방송을 만드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스스로 그들의 권리, 사회적 문제 등에 접근하여 어린이의 눈으로 본 방송을 제작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사회에 반영하도록 돕고 있다.

썹써바이!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에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을 가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면서 나는 장기자랑 조를 맡았다. 특별한 장기가 없는 나는 막막했지만 곧 떠오른 아이디어가 마술이었다. 평소 마술쇼를 좋아하는데 직접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 용기가 났다. 혼자 준비를 하다가 마술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 그럴 듯한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다.

다시 만날 캄보디아를 생각하며...

성남고등학교 2학년 · **이 병 준**

봉사활동 첫날, 첫 번째 도착한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병에 걸려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을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적인 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지도 선생님께서 우물의 동판을 전달하셨다. 우물은 우리 학교와 플랜코리아가 지원하는 것인데 나는 학교가 매우 자랑스러웠다. 이제 우리 차례! 첫 순서가 바로 나의 마술 공연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처음은 그림책 마술이었는데 비교적 쉬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신문지 마술이었다. 이 마술은 내가 비장의 무기로 준비한 것으로 매우 시각적인 마술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실패였다. 신문 속 숨겨놓은 비닐에서 물이 쏟아지는 순간 나는 자책감에 또 아이들의 나를 향한 실망감에, 그리고 미안함에 여러 생각이 내 머리 속을 스쳐갔다.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몰랐지만 겉으로는 활짝 웃었다. 내가 시무룩해 있다면 아이들이 더욱 실망할까봐 순간적으로 웃음을 지은 것이었다. 고맙게도 아이들과 현지 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박수까지 쳐주며 나를 격려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후 이벤트 조는 아이들에게 동물 풍선을 만들어 주고 탈춤 조는 탈춤을 췄다. 우스꽝스러운 탈과 눈에 띄는 빨간색 의상, 그리고 경쾌한 음악에 모두 신이 났다. 아이들은 너도나도 모여들어 동물 풍선을 받았고 멋진 의상과 노래에 마음을 뺏긴 듯 집중했다.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했다.

공연 후 아이들과 작별을 한 후 우물을 보러 갔다. 우물은 아직 미완성이었는데 앞으로 이곳 사람들이 이 우물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더욱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마을에서는 구호품을 직접 전달했다. 아이들이 하나 같이 손을 모으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수줍어하며 공책과 크레파스 등을 받았다. 아이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깜찍한 율동을 하며 전통노래를 불렀다.

셋째 날, 세 번째 마을에서는 공연도 하고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 마술도 모두 보여줄 수 있었다. 전날 밤, 미리 가져온 신문지로 마술도구를 다시 만들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전통놀이인 투호였다. 장난감을 상품으로 걸고 투호게임을 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크레파스로 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하고 어린 친구에게는 색종이를 접어주었다. 아이들이 답례로 선생님의 노래에 맞춰 전통춤을 추었다. 동작이 딱딱 맞는 것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다. 이렇게 모든 봉사가 끝이 났다.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토록 훌륭한 문화와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나라가 오늘날에는 세계 5대 빈국에 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반면 캄보디아의 행복지수가 세계3위라는 것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생활수준은 낮지만 큰 욕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공부하기 귀찮아하고, 반찬투정도 하고 같은 옷에 싫증을 낸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했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앞으로는 내게 주어진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10년 후에도 캄보디아를 방문할 생각이다. 캄보디아가 10년간 어떻게 변했을지, 내가 캄보디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다.
다시 만날 캄보디아를 생각하며...

리 하이! (안녕히 계세요!)

플랜의 아동 후원은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192개국이 서명한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 1조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이야기

10세 때부터 플랜에 등록된 이스마일은 어느덧 15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일은 일을 해야 하므로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일을 해야 하는 이스마일은
플랜 후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마일이 사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플랜 사무소는 2006년부터
'지역 교육 지원'을 통해 이슬라마바드, 만쉐라, 차크왈, 비하리 지역에서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을 대신하여 일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른들을 대상으로 비정규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초등, 중등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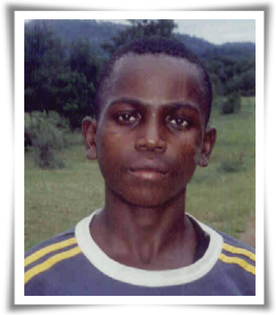
작년, 이스마일의 마을 사람들은 플랜과 함께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천에 돌입하였습니다.

- 모든 부모를 위한 성인 읽기와 쓰기 시설 건립
- 학교를 중퇴한 어린이들을 위한 비정규 교육 시설 설립
- 3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이들과 그 어머니를 위한 유치원 교육 과정 설치

학교 밖에서 야외 수업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실제로 파키스탄 Vehari 지역에서는 Plan의 도움으로 Al Hamd Taraqiati Tanzeem라는 지역 교육 개발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곳은 가난으로 인해 꿈을 접어야만 했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비공식 교육 센터입니다. 기관을 통해 많은 아이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공부할 수 있었고, 자격 시험을 통과한 몇몇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드의 이야기



에드네 가족은 집에 화장실이 없고, 마실 물은 10km 이상 떨어진 우물에서 길어와야 합니다. 에드네 집이 있는 곳은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병원에 가기 힘들 정도로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에드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에드가 살고 있는 짐바브웨의 Chiredzi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덮개가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사용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많은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걸어서 2시간은 가야 하는데다, 병원에 가더라도 약이 충분치 않아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플랜은 2000년도부터 짐바브웨 내 모든 플랜 사업 지역에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 시설 지원, 마을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 기초 건강 관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8개의 지역 건강 관리 센터가 새롭게 단장하였고, 먼 마을 주민들도 센터와의 연결이 닿을 수 있도록 통신 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추공 등 정교한 장비를 이용하여 총 210개의 식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였고, 짐바브웨 내 7백여 명의 식수 관리 위원들을 두어 지속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어도 세면대 등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와 가정에 좀 더 향상된 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랜은 시설 설비뿐 아니라 짐바브웨 보건기구와 함께 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 수인성 질병과 기생충 감염 등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플랜의 대표적 활동 목표인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지역 개발 (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에 부합하는 건강 관련 어린이 클럽 활동도 증가된 것은 물론입니다.

짐바브웨 지역 건강 센터 직원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짐바브웨 내 플랜 사업 지역 인구 중 절반 정도만이 1km 내의 식수 공급 시설을 통해 안전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의약품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변화는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원 확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물가 상승률로 짐바브웨를 비롯하여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식량, 의약품,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마일과 에드와 같이 꿈 많은 청소년들의 후원자가 되어준다면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가,
그 가정과 마을은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문의] 전화 02-790-5436 / e-mail : kno@plankorea.or.kr

롯데백화점이 2005년 3월 오픈한 명품관 에비뉴엘은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최고의 명품 부티크들이 가득한 핫 쇼핑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예술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단순한 명품관이라는 기능적 명칭을 넘어서 자선(Charity)과 예술(Art)라는 분명한 이미지로 주목 받고 있는 에비뉴엘이 베트남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Share the Love with Avenuel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업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명품마케팅담당 김 혜 주

반갑습니다. 이번 베트남 기숙학교 건립에 참여하게 된 에비뉴엘의 지원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말은 언제나 '교육'을 자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학교 및 기숙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는 매년 수익금을 소외된 아이들에게 기부해 온 에비뉴엘의 자선 행사가 지향하는 '나눔과 온정'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가 멀거나 우기 때는 길이 험해 통학하기 쉽지 않은 베트남 어린이들은 누구보다 '배움'에 목말라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와 기숙사가 함께 이루어진 '롯데 스쿨(Lotte School)'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에비뉴엘 오픈 3주년을 맞이하여 포토그래퍼 김중만과 함께 진행한 사진전 "Be our Star" 전의 수익금을 모두 기탁했으며, 모엣 & 샹동과 함께하는 이번 연말 자선 캠페인 수익금 역시 전액 베트남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지원을 결정하자마자 다양한 이벤트로 기업 위주가 아닌, 고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에비뉴엘은 2005년부터 꾸준히 자선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5년, 명품 브랜드 세린느와 함께 "Love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여 성가정 입양원에 기부하였고, 2006년에는 김점선 화가와 함께 아트와 자선의 만남을 주제로 한 패션 아트를 탄생시켜 화성 영아원에 기부 하였습니다. 꾸준히 자선캠페인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2008년 3월, 에비뉴엘 고객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담아낸 김중만 작가의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플랜코리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플랜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배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가 멀거나 길이 험해 통학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이보다 더 따뜻하고 특별한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내부, 외부 반응이 궁금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저희 에비뉴엘 고객들을 직접 모델로 촬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 김중만 사진작가의 "Be our Star" 사진전인 것 같아요. 사진 속 주인공들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객 한 분이 제게 "에비뉴엘의 자선 캠페인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욱 특별한 것 같다며"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전해주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로서 계획 중인 이벤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Share the Love with Avenuel"이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해온 자선 행사는 올해도 변함없이 따뜻하면서도 품격 있는 자선 캠페인 릴레이로 이어집니다. 특히 2008년 캠페인은 세계적인 샴페인 브랜드 모엣 & 샹동과 배우 이지아의 참여로 한층 특별해졌습니다.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출연한 이지아는 바쁜 촬영 일정 중에도 이번 자선캠페인을 위해 모엣 & 샹동 패키지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이지아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된 이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패키지는 '사랑 나눔'이라는 자선의 의미를 살려 따뜻한 골드 톤의 멋진 동화를 완성했습니다. 간결하고 세련된 느낌의 모엣 & 상동 "Share the Love with Avenuel" 패키지의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또 하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서 소장 가치 또한 높습니다. 사랑의 설레임으로 가득한 12월,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향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의 계획이나 포부 등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저희 에비뉴엘이 오픈 하면서부터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온 에비뉴엘 자선캠페인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덕목인 자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비뉴엘은 언제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하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도우려고 하거든요. 다음주에는 떡볶이도 팔려고 하구요. 플랜 배너도 달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플랜으로 걸려왔던 전화 한 통으로 올해 다섯 살인 캄보디아 소콘(Sokorn)과 한영외고 플랜동아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방문기

한영외고Plan 번역 동아리 · 김진연, 정라희, 한재선

캄보디아에 대해 처음 들었던 것은 세계사 시간이었다. 앙코르 왕국이라는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웠지만, 14세기부터 쇠퇴하며 보수세력과 우익세력 등의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지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불안정한 정세와 열악한 위생시설, 높은 HIV/AIDS 감염율 등은 캄보디아 방문을 망설이게 만들었지만 풍부한 문화유산, 아름다운 풍경, 인상적인 사원들, 그리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 3일간의 캄보디아 방문은 이러한 나의 편견을 깨뜨리기 충분했다.

냉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오래된 중고 버스를 타고 캄퐁참 지구로 들어간 우리들은 방문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 후 한 동안 말을 잇지 못 했다. 외부인에게 어색함을 느꼈던 것일까? 거부감과 거리감을 담은 눈동자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자 따뜻한 환영을 기대했던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 준비해간 풍선과 고무공을 나눠 주자 풍선을 불고 공놀이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줄넘기를 연결해 '꼬마야'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곧 옆에 모여서 신기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열어가는 듯 웃어주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어린이들과의 놀이를 뒤로 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소콘네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반긴 것은 소콘네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친척들, 동네 꼬마들, 그리고 방문했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다른 집들과 독립적으로 있는 한국과는 달리, 캄보디아에서는 이웃들이 가족처럼 언제든 이웃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따뜻해 보였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소콘은 아직 너무 어려서 인지 낯을 많이 가리고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하나 다를 바 없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통역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천사를 본 적이 있는가? 우연히 가게 된 캄보디아에서 우리는 천사를 만났다. 우리가 느닷없이 눌러대던 카메라 셔터 하나 하나에도 뜻 모를 브이 자를 그리며 싱긋 웃던 어린 천사들을 나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힘들고 지칠 때면, 오늘같이 춥고 눈이 내리는 날이면 먼 나라 이방인에게 그들이 지어줬던 환한 미소가 그립다. 생애 처음 눈이란 것을 보고 어리둥절할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면 내 마음도 절로 따뜻해 지는 듯한 느낌이다. 그 동안 나는 도움을 주기보단 도움을 받기만 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럽기도 했다. 날개 없는 천사들이 내게 주었던 과분한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보려 한다. 10년 후 같은 곳에서 부쩍 큰 어른으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해 있을 소콘의 미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축복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가져본다.

플랜코리아
여러분들의 사랑이 한 아이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02-790-5436 아이들의 소중한 꿈, 플랜코리아가 키워갑니다.

"나마스떼~"

8월 21일, 프라바트 스쿨이 있는 네팔간지로 출발했습니다. 카투만두에서 경비행기로 한 시간을 날아 도착한 네팔간지의 거리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깜짝 환영식에 적잖이 놀랐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 오는 네팔 아이들과의 만남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금방 정이 들어 버릴 것 같았어요.

학교 신축으로 2년제 대학과정도 마련하고, 도서관과 컴퓨터실도 생겨서 네팔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되었다는 교장 선생님 말씀에 모두들 뿌듯했습니다. Daum과 프라바트 스쿨의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나무도 심었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니 네팔에 왔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환영식을 마치고, 드디어 만난 아이들! 낯선 한국인들의 방문에 1학년 33명의 꼬마는 어색하기만 한가 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자기 사진 오려서 이름표 만들기!!!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그림을 그리며 친해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로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작은 운동회"

다음날에는 아이들이 교문까지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가슴에 안기는 아이들.. 오늘은 개구쟁이들과 작은 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준비 운동으로 국민체조를 곧잘 따라했어요. 응원열기도 뜨겁습니다. 퉁!퉁! 샹그리싸 (화이팅!)

첫 경기는 사탕 먹고 달리기. 사탕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탁구공 들고 달리기도 척척 잘해내는 아이들.. 떨어지면 안돼.. 조심조심..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제대로 된 축구공을 갖기 힘든 아이들은 축구공 차기 재미에 푹 빠져 버렸습니다. 슛~ 골인!!

우리들은 축구골대를 세워주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튼튼한 골대를 세웠어요. 지금쯤 아이들은 열심히 공을 차고 있겠죠? 너무 보고 싶어지고 지난 시간들도 너무 그립구요.

네팔 희망학교 아이들과 보낸 특별한 여름 이야기

다음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팀 **박 지 영 과장**

해마다 여름이 되면 Daum人들은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임직원들이 1년 동안 모은 기부금으로 세운 지구촌 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시설도 보수하고 학생들과 우정을 키우는 특별한 봉사활동이 바로 그것이에요.
올 여름엔 네팔에 지은 두 번째 지구촌 희망학교 '프라바트 스쿨'에 다녀왔어요. 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9명은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우리가 지은 학교를 내 눈으로 본다는 흥분이 가득했지요.

"같은 눈 높이"

비누방울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 했던 아이들이 비누방울 공연에 열광합니다.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물총놀이 시간에는 옷이 젖는 줄도 모르게 즐거웠어요. 해맑은 아이들 표정에 우리들이 더 신이 났죠. 올챙이송과 머리어깨무릎 동요를 네팔어로도 함께 불렀어요. 37도 한낮에 옷에는 땀이 흠뻑..!

"마음을 담아.."

Daum을 대표로 방문했던 우리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길 바라며 서툰 솜씨로 타일벽화 작업도 했어요. 등교길 벽화를 보며 아이들도 우리 생각을 할 거예요.

"배리베리운나(또 만나)..."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었어요. 떠난다는 마음에 목이 메여 애써 또박또박 말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는 걸까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밤늦게 까지 모여서 만든 포토보드는 33명 아이들에게 모두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기 사진을 보며 조잘조잘 떠드는 귀여운 우리 아이들. 사진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여름을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네팔 아이들로부터 더 큰 선물 받고 오리란 것을 말이죠. 우리들에게 해맑은 눈빛과 환한 미소로 밝게 웃어줬던 아이들은 행복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들만의 추억도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에게 학교를 선물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린 시절의 전부이고 미래의 희망이었어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지구촌 아이들에게 희망 학교를 선물하고 싶어졌습니다. Daum人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개구쟁이들,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플랜코리아 소식

KOICA,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플랜코리아 포함, NGO 4곳에 첫 지원

지난 9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 박대원)은 플랜코리아를 비롯한 4개의 비정부기구(플랜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약정 체결식을 기점으로 4개 NGO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에 대한 질병퇴치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플랜코리아는 세네갈 의료보건시스템 역량강화 및 아동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내, 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의 항공권 1매당 1천원으로 조성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4개 사업에 지원되는 전체 기여금 규모는 약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뉴시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탄자니아 키사라위 지역 가족 건강 증진 사업

지난 9월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8년 테마기획 해외지원사업으로 플랜코리아와 함께 탄자니아의 키사라위 지역 가족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탄자니아는 세계 177개국 중 156위의 경제 약소국으로,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 키사라위 지역 내 74개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5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 말라리아와 HIV/AIDS 질병 감염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740명의 마을 보건 종사자 및 6개의 지역 단체 교육 지원으로 효과적인 주민 교육 및 질병 예방 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내 관리자들의 보건 교육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빠른 진단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1차 년도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R "바자회 수익금으로 캄보디아 어린이들 도와요"

(주)EXR KOREA(대표 민복기)는 지난 9월 27일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Progressive School Campaign' 바자회를 개최했다. 현재 EXR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의 초등학교 건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바자회는 캄보디아 'EXR Progressive School' 완공을 기념하는 취지로 진행되어 EXR의 티셔츠, 자켓, 팬츠, 모자 등 450점의 상품 바자회 외에도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날 바자회 판매 수익금은 전액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학용품을 구입하는데 쓰일 예정으로 12월 완공식에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패션저널]

베트남 어린이 50명 돌보는 '한국인 양아버지'

지난 10월 1일, 중앙일보를 통해 플랜코리아의 후원자 신촌연세병원 김영진 원장의 후원스토리가 소개되었다. 현재 베트남 꽝응아이 주 손딴 마을에 사는 50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있는 김영진 원장은 병원 직원들에게도 후원을 권유하여 현재 신촌연세병원에는 김영진 원장을 포함, 베트남 아동 100명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다. 김영진 원장은 인터뷰 내내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인터뷰 말미에 김영진 원장은 "언젠가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봤는데 '내가 끼고 있는 금반지, 타고 다니던 차를 내놨어도 수십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절규하던 주인공의 모습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라며 "능력 닿는 만큼은 돕고 싶다" 라는 말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내년 봄에는 직원들과 손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의료봉사를 펼치면서 아이들을 만날 계획이라는 이번 김영진 원장의 따뜻한 후원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멋진 주얼리쇼 보며 저개발국 어린이 도와요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는 플랜코리아와 세인트 에띠엔느가 함께하는 자선바자 쥬얼리쇼가 진행되었다. 핑크 다이아몬드 세트, 블랙 다이아몬드 세트 등 총 9가지 쥬얼리 세트를 모델이 시연해보는 이번 행사는 총 4일 간 전시 및 판매되었으며 수익금 일부와 고객 모금액은 플랜코리아에 기부되었다. 이번 행사의 기부금 전액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포스코, 베트남 유치원 및 초등학교 완공식

지난 11월 20일, ㈜포스코(회장 이구택)가 지원한 두 개의 학교의 완공식이 베트남 리엔숀 마을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포스코 지정기탁사업으로 플랜코리아와 함께 2007년 7월부터 베트남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건축을 지원해 왔었다. 포스코와 포스코 교육재단 임직원 및 포항 지곡초등학교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 10명은 리엔숀 초등학교 완공식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의 완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곡초등학교와 리엔숀 초등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어 두 학교 학생들의 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향후 지속적인 연계를 약속했다. 한편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5개의 초등학교 학생 5,000여 명은 리엔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금 약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학생들의 기부금 중 일부로 리엔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가방을 선물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기로 했다.

플랜 지구촌 소식

플랜 아이티 / 허리케인이 휩쓴 마을에 학용품 제공

2008년 10월 20일, 플랜은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 남동쪽의 자크멜 지역에 9,000여 개의 학용품 세트를 전달하였다. 10,800여 개 이상의 건물이 무너지고, 326명의 인명 피해를 낸 지난 폭우로 인해 약 180,000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학용품 보내기 프로젝트는 아이티 남동쪽에 지원된 첫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실행하는데도 꼭 필요하다. 또한 라바리, 카예스, 자크멜, 마리갓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플랜은 재해 지역의 긴급구호 사업과 더불어 재난을 경험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플랜 짐바브웨 / 구순열 환아 치료 통해 아동의 자신감을 살려

9살인 탈렌트와 4살인 치포는 오랫동안 구순열로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구순열은 태어날 때, 입술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구순열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도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고 말하는 것을 꺼린다. 플랜 짐바브웨는 치포와 같이 구순열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의사표현을 위한 언어 치료도 필요하구요." (피터-플랜 지역 개발자)

탈렌트와 치포는 11월 수술을 통해 구순열을 벗어나게 되었지만 아직 같은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도 플랜은 더 많은 구순열 환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플랜 인도네시아 / 질병이 사라진 사웨 마을

2008년 11월 17일, 인도네시아 사웨 마을의 어린이들은 11월 19일 세계 화장실의 날을 기념하였다. 전 세계의 위생문제는 매년 2,200,000 명 이상의 어린이의 사망원인이 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부분 화장실 사용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때문에 플랜은 1999년부터 CLTS(Community-Led Total Sanitation: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총체적 위생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개발국 내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위생 관련활동을 감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플랜 인도네시아에서는 2월부터 실시하여 지역, 정부, 청소년들이 모두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프로젝트 팀은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마을에 12개의 화장실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홍보하였다. 사웨 마을도 위생 불량으로 인한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플랜의 위생 사업이 실시된 이후 1,500개의 가정에 단 한 건의 설사 및 기생충도 발견되지 않았다.

후원아동의 종교에 대해 알아 보아요!

전세계의 플랜 후원국가 49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은 지역, 혹은 국가별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종교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종교가 해당하는 국가들과 주요 기념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교	해당후원국가	주요 기념일
애니미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광범위하게 분포	1) 8월 얌 축제 : 서부 아프리카 2) 11월 토고의 하볘 (Habye) 3) 1월 24일, 볼리비아의 아라시타 (Alacita)
기독교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일부 아프리카 지역 등	1) 크리스마스 :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날 (12월 25일) 2) 성(聖)금요일, 수난일 :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 (3월/4월 – 날짜 변동 있음) 3) 부활절 :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3월/4월 – 날짜는 변동 있음)
힌두교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1) Diwali (빛의 축제) : 11월/12월 2) Shivarati (시바 여신의 탄신축제) : 3월 3) Holi (색깔의 축제) : 3월
이슬람교	방글라데시,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이집트, 가나, 기니, 인도네시아, 케냐, 말라위, 말리, 니제르, 파키스탄, 세네갈,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1) 라마단 : 모하메드가 코란이 된 계시를 받은 달을 기념 (10월/11월) 2) Eid al-Fitr : 금식의 달 라마단의 마지막을 축하하는 날 (11/12월) 3) Al-Hijra : 이슬람교의 새로운 연도를 축하하는 날 (2월/3월)
불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타이, 베트남	1) 보리수의 날 (성도절) :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축하하기 위한 날 (12월 8일) 2)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 룸비니 동산에서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어난 날을 기념 (음력4월 8일) 3) 웨삭 (Vesak) : 일부 불교국가에서 명절로 지냄. 석가모니의 태생, 깨달음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 (4월 혹은 5월 – 나라마다 날짜 다름)

❶ 나무신에 관한 조각작품
❷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흰코끼리를 만들고 있는 인도 소녀
❸ 스리랑카의 어린이가 그린 웨삭(Vesak) 축제의 모습
❹ 새해맞이 축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반다이체 지역의 이슬람교 어린이들
❺ 크리스마스 트리 앞의 에콰도르 소년들

Count & Click your Camera for Display!!?

"플랜이 만난 또 다른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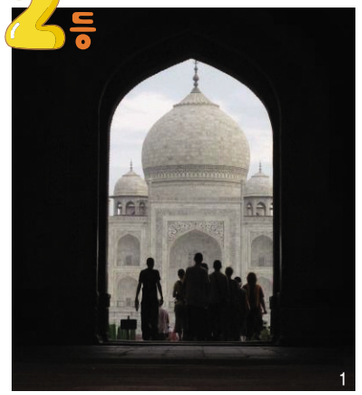
(World Culture for Harmony)

플랜코리아의 플랜클럽 네이버 cafe 플랜커뮤니티(cafe.naver.com/plancommunity)의
10월 이벤트 "플랜이 만난 또 다른 세계" 사진전 당선작품입니다.

1등

팅그르 (whhyflove) 님 '오늘을 산다'
흔들리는 바람개비의 꿈 : 네팔의 한초등학교 수업시간. 이방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

2등



1. 앨리스 (tilldie) 님 '그리운 곳, 인도..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랑, 희망'
2. 배배 (dfj66) 님 '라오스의 모습'

3등

cloacina (cloacina) 님 '다즐링역의 놀이'

여튼나 (skyish1) 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츄파춥스(tngs4415) 님 '여수와 고흥 사이, 순천만'

플랜클럽과 플랜커뮤니티의 이벤트는 매달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NAVER 검색창에 플랜커뮤니티 을 쳐보세요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모금함 · 특별후원금 · 특별 후원자 · 봉사 ·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일반모금함

Wine House & Agio(홍대점)	50390
새빛안과 일산 본원	61,600
M사브샤브(대치동 상가)	49,250
삼성레포츠센터	17,580
숙명대학교 도서관 문구점	45,220
서울 플라자 호텔	342,050

자바씨티

포스코점	23,250
테헤란점	14,230
서면 태화점(부산)	13,000
KTF멤버스 플라자 강남점	8,730
청담 GE점	26,200
대구점	66,950

조선호텔

인천공항 조선호텔 일식당	156,420
인천공항 조선호텔 다이닝 카페	118,740
인천공항 조선호텔 푸드코트	81,880
인천공항 조선호텔 푸드코트	185,650
코엑스 오킴스브로이하우스	33,350

특별후원금

이기섭(모금함)	103,570
서공임전시회	805,200
현대백화점-쎄인트 에띠엔느(모금함)	47,000

에티오피아성금

이충현	20,000
홍부용	20,000

THE좋은 선물

고 홍석규 님	50,000	이영미	20,000
권애선	100,000	이윤덕	50,000
길방미	100,000	이진성,최순희	2,000,000
김도연	50,000	이충현	20,000
김동연,김나연,김세연	150,000	임동준	50,000
김태환	1,000,000	임인숙	100,000
김효선	50,000	장동식	50,000
문명화	10,000	장윤정	1,000,000
박옥련	30,000	전시우	50,000
박인자	50,000	정금자	100,000
박준우/준호	100,000	정두리	50,000
송미산	90,000	정선희	50,000
송진흥	50,000	정하나	30,000
신금숙	100,000	조가호	700,000
심민호	50,000	조인순	100,000
심영철	1,000,000	조준행	1,000,000
심재은	50,000	주미선	250,000
오산고등학교	258,930	최규배	50,000
용현초등학교 3-7	100,000	최지림	100,000
이경아	50,000	태안건설 마라톤 동호회	310,000
이미진	200,000	표영희	50,000
이영미	30,000	한보석	80,000

한은정	50,000
함영희	100,000
함인옥	50,000

사무봉사

강주혁	박주향
고영곤	심준보
권상진	유현주
김기양	이병현
김민경	이인서
김민지	이자영
김민지	이정하
김선미	이지현
김선정	이희철
김영하	정혜인
김정원	조우현
김정원	조장신
김현지	진승연
류한나	최서윤
박경승	최유진
박민승	최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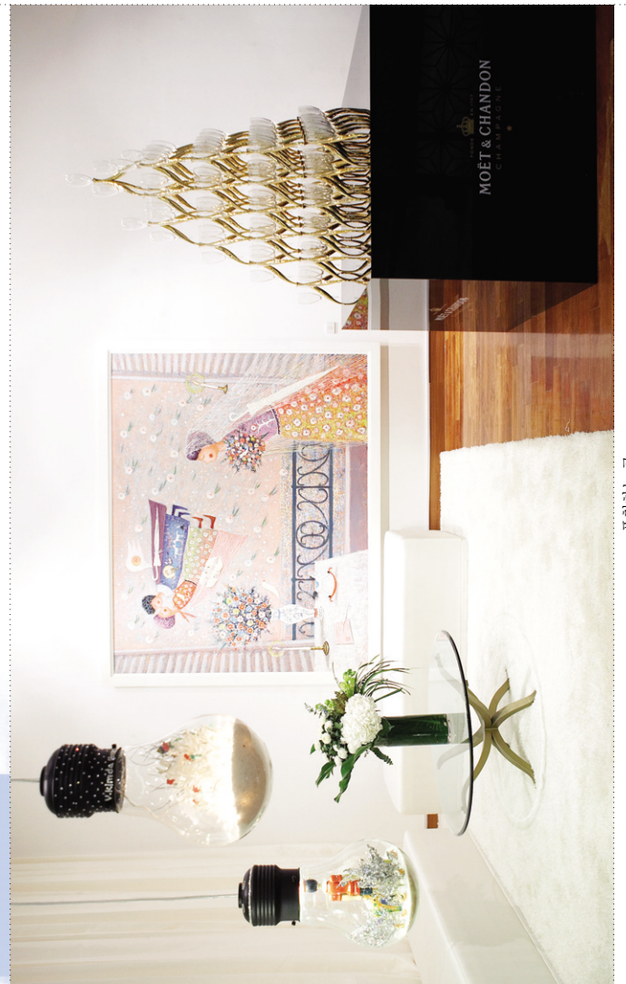
번역봉사자

감경민	김도영	김주형	박소영	백승훈	양혜지	이민애	이유진	이현진	정다환	지혜림
강나루	김혜지나	김지윤	박소은	백운정	엄호준	이민영	이윤영	이혜진	정라희	진경휘
강미경	김미영	김진연	박수경	백혜윤	오남훈	이민영	이윤찬	이효진	정미선	진인휘
강영주	김미영	김태원	박수희	변정모	오세욱	이민정	이은규	이희진	정성환	차윤승
강혜원	김민서	김하은	박영준	변진희	오주영	이민정	이은주	이희철	정슬기	채아미
고미경	김민선	김한태	박은경	서성미	우경욱	이민협	이인희	임경택	정우림	최동석
고영곤	김민지	김현정	박정현	석진영	우재욱	이보미	이자영	임서우	정유진	최린범
고은애	김민지(영문)	김현주	박주혜	손명희	우창균	이보슬	이재승	임석인	정윤지	최서운
구나영	김민지(번역)	김현준	박준재	손수정	원종은	이선민	이재혁	임승혜	정은주	최선영
구창근	김상욱	김혜미	박지민	손주리	유선영	이선영	이재훈	임신효	정은하	최수정
권도이	김서영	김희연	박지선	송수현	유수인	이선영	이정아	임혜민	정재원	최수정
권미성	김성훈	김희연	박지혜	송인애	유정화	이선호	이주연	장미영	정평화	최승원
권성준	김세훈	남계령	박현미	신경은	유현석	이세정	이준오	장민정	조근장	최승혁
권영찬	김소연	남소현	박혜진	신동주	윤숙경	이수정	이지연	장수임	조민정	최우석
권은진	김수정	노연우	박희주	신승혜	윤유경	이승우	이지완	장재윤	조부견	최유리
금윤정	김완수	류한희	배미연	신재영	윤정원	이승준	이지원	장재호	조석윤	최유진
김경민	김유미	류혜선	배민주	심무희	윤지연	이신영	이지은	전미리	조성하	최윤영
김고은	김재욱	문언경	배재연	심운자	윤형석	이애리	이지현	전서영	조성희	최지은
김규백	김정동	박대인	배효경	안소영	윤혜린	이연주	이진미	전소정	조영주	최진
김나영	김정아	박미경	백관우	양윤영	윤호상	이예인	이필종	전수지	조윤진	최희중
김노은	김정원	박부영	백민정	양진혁	이도연	이예진	이하나	전유경	조은	츠사웬
김대일	김종석	박소영	백상훈	양혜리	이동윤	이용락	이현지	정난영	조혜정	하승완

행사봉사

한상임
한재선
한정석
한정훈
함가리
허태환
홍나연
홍승균
황희
김내오
이경민
이인희
이준엽
천유화

• 2008년 겨울호 • Vol. 45 • 발행일 _ 2008년 12월 19일 • 발행처 _ 플랜한국위원회 • 발행인 및 편집인 _ 노영찬 • 홈페이지 _ http://www.plankorea.or.kr
• 주소 _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1 리첸시아 B-1503호 (140-210) • TEL _ 02-790-5436 • FAX _ 02-790-5416 • 디자인 · 인쇄 _ 화신문화(주) 02-2277-0624



풀칠하는 곳

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7.11.21~2009.11.20
용산우체국 제1430호

우편엽서

받는 사람

Plan Be a part of it.
플랜 한국위원회 (彊 養親會)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1
리첸시아 B-1503호
1 4 0 - 2 1 0

보내는 사람

□□□-□□□□

특별 후원자

강선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권아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김권중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김상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김석향			
김성수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김성현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김세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9동
김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김은경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김정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김태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김해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김효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남상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남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노현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희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박상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박성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박성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박옥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박지영	서울특별시	중구	정교동
박지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서재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7동
신승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
오승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윤영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이민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이수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이예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이유정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이지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전민정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정초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조병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주진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최성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최정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최종숙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최지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동
한승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홍기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일시 후원자

강경민	경상남도	사천시
노주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다솔	경상남도	창원시
이경동	광주광역시	북구
이운성		
임하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후원자 번호순으로 게재하였으며 어린이 후원에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후원자 번호순으로 게재하였으며 어린이 후원에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주위에 플랜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소개해 주세요. 플랜에서 대신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이름 :

주소 혹은 연락처 :

이름 :

주소 혹은 연락처 :

추천인 :

플랜에 바라는 글 :

후원신청서

이 름 (한글) (영문) ☐남 ☐여 ☐단체 ☐커플

주 소

전화번호

E-mail

플랜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아동 결연 후원 (명)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의 어린이와 결연이 되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방법 입니다. 한 어린이와 결연 시 후원금은 매달 3만원입니다. 한 어린이를 커플 또는 단체가 함께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특별사업지원 후원 (만원)

플랜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아래와 같은 특별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방법입니다. 매달 1만원 이상으로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거리의 아이들 지원 • 에이즈 고아 지원 • 양 지원

☐ 프로젝트사업지원 (최소 미화 5,000달러 이상)

플랜이 49개국에서 실시하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개선, 생계지원, 문화교류 등 5대 사업 분야의 단위사업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 학교 건축 사업 • 우물 지원 사업 • 식량 지원 사업 • 기생충 예방사업

♥ 납부 방법

☐ CMS에 의한 자동이체

금융결제원에 의해 자동으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 통장의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카드결제

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외환카드, LG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한미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을 전화를 통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와 카드결제를 신청하신 분은 추후에 연락을 드려 필요한 사항을 접수 받습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전화 02) 790-5436 E-mail : kno@plankorea.or.kr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재정경제원공고 제1966-12호)

접는선

Share the Love with Avenuel

Nov. 20 ~ Dec. 31, 2008

2008년 에비뉴엘과 모엣 & 샹동이 함께하는 자선캠페인을 위해 배우 이지아가 특별히 디자인한 모엣 & 샹동 "Share the Love with Avenuel" 패키지는 롯데백화점 전 점포에서 12월 말까지 한정 판매됩니다.

DATE 2008.11.20-12.31 VENUE 롯데백화점 전 와인매장

* 판매 수익금 전액은 베트남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 설립에 기부됩니다.